

광주전남작가회의 신임 회장 김미승 시인

“광주, 한강 노벨상으로 자긍심 올해 오월문학제 만반의 준비”

시 등단 후 아동청소년문학 병행 지역 작가 활발한 활동 지원 목표 '소년이 온다' 주제 답사·토론 등 타지역 작가 단체와 교류도 추진

“어수선한 시국에 막중한 임무를 맡게 돼 어깨가 무겁습니다. 회원들 뜻을 받들어 광주전남작가회의를 잘 꾸려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광주전남작가회의(작가회의) 제 17대 회장에 김미승(사진) 시인이 선임됐다. 임기는 2년.

김 회장은 지난 18일 오후 3시 광주문화재단 빛고을시민문화회관 4층 다목적실에서 열린 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추대됐다. 이날 총회에는 작가와 시인 등 모두 200여 명 문인들이 참석해 새 집행부 구성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작가회의는 ‘표현의 자유와 광주 오월정신을 표방하며 참여적 작가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의 대표 문학인 단체다. 현대사 고비마다 5월 문학정신을 토대로 활발한 창작은 물론 울곡은 목소리를 내었다.

김 회장은 시인으로 등단해 아동청소년문학을 병행해 왔다. 지금까지 창작활동에만 전념했는데 “이번 회장 선임은 계기로 전체 회원들의 활동에 보탬이 되는 일들을 실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제17대 작가회의는 기존의 정신을 잘 계승하는 토대 위에서 올해는



‘돌봄’이라는 가치를 활동의 모토로 삼고자 한다”며 “스스로 나를 돌보고, 내 옆을 돌보고, 나아가 내 주변을 돌보는 마음”으로 함께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올해 추진할 역점사업으로 ‘오월문학제’를 꼽았다.

전국 문인들이 광주에 집결해 5월 정신을 모티브로 5·18 정신 계승과 창작, 교류를 위한 다각도의 활동을 펼치는 대회다.

그는 “올해는 한강 작가 노벨상 수상으로 작가들

자긍심이 한층 높아졌다. 특히 광주 5·18을 배경으로 한 작품 ‘소년이 온다’가 세계문학 반열에 오른 만큼 타지역에서 광주에 대한 기대도 더욱 높아졌다”며 “우리 작가회의도 그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타지역 작가 단체와의 교류도 추진할 생각이다. ‘소년이 온다’ (가칭)를 주제로 ‘광주 문학기행’ 형태의 답사, 토론을 진행한다면 광주 정신을 확산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는 예감이다.

‘섬진강문화학교’도 작가회의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이다. 청소년들의 문학적 감수성을 일깨우고 창의력을 발휘하기 위한 문화학교도 올 여름에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회원들과의 친목 도모, 교류도 작가회의의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사업이다. 김 회장은 “회원들의 창작 의욕과 단합을 위해 전체 모임을 확대할 방침”이라며 “기존 ‘회원의 날’ 행사를 늘리거나 작품집 출간 회원들의 출판기념회 횡수를 늘려 창작 활성화, 친목 도모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북포, 순천, 여수 지부와 함께 행사를 추진하는 등 지역 지부와의 행사도 모색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올해는 전체 회원들의 활동에 보탬이 되는 일들을 찾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같다”며 “아무췌로 단체의 수장으로 서역대 집행부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토요가무악회 ‘그린국악’ 막 오른다

전남도립국악단 4개 시즌 라인업... 25일 태평무·민요 등 첫 공연

전남도립국악단(예술감독 조용안)이 토요가무악회 ‘그린국악’ 라인업을 공개했다. 총 4개 시즌제로 나눠 운영하며 남도소리올림픽 공연장에서 오는 25일(오후 4시) 첫 시즌 공연을 개시한다. 당초 지난 4일부터 3월까지 공연할 예정이었으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가에도 기간 등으로 인해 변경된 일정을 안내한다.



박재희류 벽파입춤 ‘가인여옥(佳人女玉)’ 공연 장면. <전남도립국악단 제공>

먼저 25일에는 강선영류 ‘태평무’와 ‘서영호류 산조 합주’를 비롯해 민요 ‘보림’, 타악 앙상블 ‘도당’과 ‘비나리’ 등이 올려 퍼진다.

2월 1일에는 북과 북의 연대 울림을 보여주는 ‘악의 연대기’를 만날 수 있다. 이어 국악실내악 ‘출강’, ‘이매방류 삼품이’를 비롯해 가야금 병창 2중주 ‘방아타령’ 등이 연주된다.

박재희류 벽파입춤 ‘가인여옥’은 손혜영이 재구성했다. 끝으로 타악 앙상블 ‘타인공감’으로 국악의 신명을 선사할 예정이다.

같은 달 8일에는 판소리 ‘곽씨 부인 장례 대목’, ‘동헌경사 대목’ 등이 우리 신명을 더한다. 대중에

게 잘 알려진 ‘제비노정기 대목’과 ‘자롱 활 쏘는 대목’ 등도 레퍼토리에 있으며, 국악실내악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과 ‘부채춤’ 등이 준비돼 있다.

3인 3색 산조 병주 ‘합’과 ‘배정혜류 풍류장구’는 15일 공연장을 수놓는다. 이외 ‘김동연류 고깔설장구놀이’, 3인 3색 판소리 ‘암행어사 출두 대목’, ‘사물놀이 판굿’을 연행한다.

끝으로 22일 공연은 ‘얕은반 사물놀이’로 시작된다. 피리 3중주 ‘춤을 위한 메나리’나 가야금 병창 2중주 ‘제비노정기’, 채상 설장구놀이인 ‘어떤 처음’과 진유림류 입춤소 ‘행화지무’ 등이 흥겨움을 더한다. 일반석 1만원. /최류빈 기자 rubi@

한국독립영화 ‘8주간의 약속’ 종영 임박

한국독립영화의 발전, 해외영화와 상생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작년 전국 극장에서 시작된 ‘8주간의 약속’ 캠페인은 지역별 상영관에서 국내 작품을 선보이는 캠페인이다. 지역에서는 광주독립영화관이 동참해 ‘럭키 아파트’, ‘공작새’, ‘최소한의 선’ 등을 상영해 왔다.



영화 ‘딜리버리’

광주독립영화관(관장 한재섭)이 ‘8주간의 약속’ 일환으로 상영하는 작품들이 종영을 앞두고 있다. 오는 23일 ‘딜리버리’, ‘한 채’와 29일 이후 ‘세입자’, ‘아침바다 갈매기’가 그것.

먼저 23일(오후 5시 20분)에는 가족 드라마·코미디물인 장민준 작 ‘딜리버리’를 볼 수 있다. 유산 상속을 위해 아이가 필요한 금수저 부부와 백수 커플 이야기이며 귀남(김영민 분)과 우희(권소현)가 계획없이 임신한 백수 커플을 마주하면서 ‘임신 사기극’을 모의하는 내용이다.

같은 날(오후 7시 20분) 선보이는 ‘한 채’도 위장결혼 이야기를 다뤘다.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

는 두 가족 문호와 고은, 도경과 사랑이 자신만의 집 ‘한 채’를 갖기 위해 고투하는 내용.

작품은 작년 가치별영화제에서 관객상을,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시민평론가상과 LG올레드 비전상을 받았다.

아울러 29일 이후 종영하는 ‘세입자’와 ‘아침바다 갈매기’도 이목을 끈다. 각각 화장실에 세입자를 들이면서 펼쳐진 이야기와, 작은 어촌마을에서 탈출을 꿈꾸던 어부를 비춘다.

한재섭 관장은 “캠페인이 종료되도 한국독립영화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관람료 1만 원. /최류빈 기자 rubi@

기후 위기 앞 행동의 전환, 나부터!

여동구 시인, 시조집 ‘심해지는 기후 재앙 내 탓입니다’ 펴내

“지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해 년마다 필멸 끊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광주는 기후 온난화를 넘어 기후 재앙으로 불릴 만큼 필멸 끊었어.”

여동구 광주홍북학원(대광여고, 서진여고) 이사장이 최근 시조집 ‘심해지는 기후 재앙 내 탓입니다’ (심미안)을 펴냈다.

여 이사장은 “광주만 해도 역대급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광프리카’ (광주+아프리카)라는 오명(汚名)을 얻게 되었다”며 “벼랑 끝으로 치닫는 지구구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시집을 출간하게 됐다”고 전했다.

나부터 먼저 의식과 행동을 바꿔보자는 생각으로 시집을 출간하게 됐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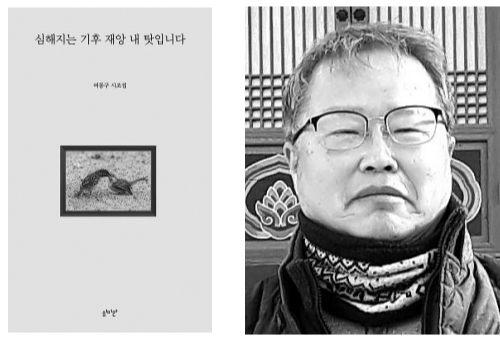
저자는 지난 2020년 공직에서 퇴직을 하면서 광주시 기후 위기 강사단으로 선발돼 시민을 대상으

로 기후 위기 관련 강의를 해 왔다. 그는 “기후 위기는 기후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지금까지 인류는 역사적으로 다섯 차례 대멸종을 겪었고 이제는 여섯 번째 대멸종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시조집은 모두 3부로 구성돼 있다. 1부 ‘자연 재앙, 그 앞에서’는 재앙에 처한 지구 생태계 현실과 대안을 고민하는 작품이 중심을 이룬다.

2부 ‘상식과 경고’는 환경 문제에 대한 다양한 상식을 담고 있다. 3부에서는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자세 등을 수필과 시조로 풀어냈다.

“하늘과 땅 사이는/ 새들의 집인데도// 높고 높은 허공 위에/ 사람 집 지어놓고// 보아도 보이지 않는/ 사람 집이 지어진다”



위 시 ‘새들은 집을 잃었다’는 집을 빼앗겨버린 새들의 처지를 비유한 작품이다. 허공까지 점령한 고층 건물과 아파트는 인간의 탐욕을 상징한다. 결국 그 탐욕이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기후 위기의 주범임을 경고한다.

여 시인은 “기후 위기에 처한 오늘의 심각한 현실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한다”며 “현재의 자연 환경을 잘 보존해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주자는 마음을 담았다”고 덧붙였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